

## 자기분화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적대성과 도덕적 기반의 연속다중매개효과\*


박 지 선†

본 연구는 자기분화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사이에서 적대성과 도덕적 기반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총 320명의 연구 참여자(20-50대 남녀 각 160명)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적대성이 높을수록, 도덕적 기반 중 개별화 기반이 약할수록, 결속 기반이 강할수록 높은 관계적 공격성을 보였다. 또한 자기분화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대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는데,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적대성이 높고, 적대성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다.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서 결속 기반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여,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결속 기반을 중요시하고, 결속 기반을 중요시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다. 더불어, 자기분화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대성과 도덕적 기반의 연속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적대성이 낮고, 적대성이 낮을수록 결속 기반을 중요시하며, 결속 기반을 중요시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적 공격성의 개선을 위해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기분화, 관계적 공격성, 적대성, 도덕적 기반, 결속 기반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3063902).

† 교신저자 :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E-mail: [jipark@sookmyung.ac.kr](mailto:jipark@sookmyung.ac.kr)

 Copyright ©2026,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관계적 공격성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상대를 배제하거나 평판을 훼손하는 등 사회적 관계의 손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성으로, 주로 신체적으로 행해지는 외현적 공격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서미정, 2011; Patafio et al., 2025). 관계적 공격성은 집단에서의 소외나 배척, 무시, 악의적 거짓말이나 소문 내기 등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김현아, 장혜인, 2016; Murray-Close et al., 2010). 관계적 공격성은 전 문화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어린 시절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학교나 직장 등 다양한 사회적 장면에서 관찰된다(윤혜성, 박지선, 2024). 관계적 공격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공격성과는 달리 교묘하고 은밀하며 간접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밝히기 어렵고 개입이 늦어지기 쉬워 그 피해가 장기적이고 후유증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설명희 등, 2023). 특히 비대면 접촉이 빈번해지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김현승, 박지선, 2023).

국내에서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는 2010년대 이후 급증하였으나, 대부분 초등학교생이나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지영, 배라영, 2014). 이러한 성인 대상 관계적 공격성 연구의 부족은 국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된 바 있다(Czar et al., 2011; Schmeelk et al., 2008). 관계적 공격성은 주로 부정적 정서나 정서조절 등 개인적 특성과 함께, 부모 양육이나 애착 등 가정환경적 특성과의 연관성이 많이 연구되었다(서미정, 2011). 이외에도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박동주, 유미진, 2023).

이에,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관계적 공격성의 심리적 기제와 관련하여 우선 심리 내적 차원 및 대인관계적 차원을 아우르는 자기분화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관계적 공격성 위험 요인 중 상대적으로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보인 정신병질의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적대성이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박동주 등, 2023). 이와 더불어, 관계적 공격성의 비도덕적인 특성상 도덕적 평가와 관련된 개인의 특성이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설명희 등, 2023),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서 도덕적 기반의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즉, 본 연구는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문화적, 성격적 접근 등 다차원적인 기제 및 그 경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의 복합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일조하고, 관계적 공격성의 개선 및 예방을 위한 심리적 개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자기분화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분화(self-differentiation)는 원래 가족 체계에서 부모와 융합되어 있던 아이의 자아가 성장하면서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가리키는데,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김남희, 김해란, 2020; Bowen, 1978). 자기분화는 심리 내적인 차원에서는 사고와 정서를 분리하여 균형 어린 판단을 할 수 있고, 대인관계적 차원에서는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여 자신의 독립성과 타인과의 연합이 조화를 이루어 공존하는 상태를 가

리킨다(김중운, 정주희, 2017).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유지할 수 있고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이정훈 등, 2013; Skowron & Platt, 2005).

자기분화는 총 5가지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정서적 반응(emotional reactivity)'은 이성과 감정의 분리가 미약하여 감정에 쉽게 휩싸이고 의사결정을 감정적으로 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둘째, '자기입장(I-position)'은 상황이나 타인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이성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드러낼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셋째, '타인과의 융합(fusion with others)'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 지나치게 얽매어 자신의 신념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킨다. 넷째,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고 타인으로부터 고립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다섯째, '정서적 융합(emotional fusion)'은 정서나 자존감이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지나친 영향을 받는 상태를 일컫는다(정혜정, 조은경, 2007).

자기분화는 우울이나 불안, 예민증 등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함께, 결혼만족도나 대인관계 갈등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되었다(윤성민, 2017; 제석봉, 2002). 특히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처를 많이 하며 폭력성을 보이기도 한다(Harani & Ben-Porat, 2026). 실제로,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신체적인 아동 학대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고(Skowron & Platt, 2005), 교제 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가능성이 더 높았다(이명신, 이계민, 2013).

이러한 신체적 공격성과는 달리 자기분화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나, 신체 폭력에만 집중되어 온 연구에서 벗어나 교제 관계에서의 언어폭력에 서도 낮은 자기분화 수준이 언어폭력을 예측하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이명신 등, 2013; 이정훈 등, 2013). 또한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신체적 공격성뿐만 아니라 언어적 공격성 및 간접적 공격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동헌, 김완일, 2013). 더불어 낮은 자기분화는 관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적대적인 문제해결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이명신 등, 2013),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격성을 예측하였다(Harani & Ben-Porat, 2026).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분화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더불어, 자기분화 수준이 낮으면 타인에 적대적이고(한동헌 등, 2013), 대인관계에서 자기중심성과 냉담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희 등, 2020). 더불어,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타인에게 적대성을 보이며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Skowron et al., 2009).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서 적대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 정신병질 중 적대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정신병질(psychopathy)은 비정서적이고 냉담함 및 공감 능력의 결여, 충동성과 낮은 행동통제 등의 특성을 포함하는 성격 특질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등을 포함한 반사회적 행동과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Hare, 2006). 그간 정신병질은 주로 범죄자 집단에 대해 강력범

죄 등 외현적 공격성과의 연관성에 집중하여 연구되어 온 점이 한계로 지적되며, 보다 미묘하고 간접적인 형태의 공격성과의 연관성이 제기되었다. 즉, 겉으로는 폭력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교묘히 조종하거나 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격성을 활용할 수 있다(Schmeelk et al., 2008). 실제로, 정신병질은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Czar et al., 2011), 관계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며(Parafio et al., 2025), 관계적 공격성의 위험 요인 중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보였다(박동주 등, 2023).

정신병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들 가운데, 성격 5요인 모델에 기반하여 Lynam 등(2013)이 개발한 정신병질 측정 도구가 EPA-SF(Elemental Psychopathy Assessment-Short Form)이다. EPA-SF는 자기보고식 도구로, 적대성, 정서적 안정성, 탈억제, 나르시시즘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된다(Lee & Sellborn, 2021). 이중 적대성(antagonism)은 대인 간 낮은 친화력과 공감 능력 부족, 냉담하고 이기적인 성향을 뜻하는데, 정신병질의 핵심 요인으로 불리며 정신병질의 대인관계적 측면 및 정서적 측면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Miller et al., 2014).

적대성은 폭력허용도 및 교제 폭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남정훈 등, 2025; 남창형, 서중환, 2024), 반사회적 행동 및 공격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Lynam et al., 2011; Miller et al., 2014). 특히 적대성은 관계적 공격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Murray-Close et al., 2010).

적대성은 냉담성(callous), 불신(distrust), 자기중심성(self-centered), 냉정함(coldness)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남창형 등, 2024). 적대성의 하위 요인 중에서도 냉담성은 공감 능력

의 결여와 연관되는데, 자기 행동이 타인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으며, 폭력을 사용하더라도 죄책감을 잘 느끼지 않는다(남정훈 등, 2025; Pardini et al., 2003). 실제로 냉담성은 반사회적 행동 및 괴롭힘,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오승은, 이승연, 2011; Preston et al., 2018). 특히 냉담성이 높으면 슬픔이나 두려움 등 정서적 표현에 둔감하고, 낮은 정서적 반응성을 보인다(Loney et al., 2006). 이러한 정서적 문제는 죄책감의 결여 및 무모함으로도 연결되어, 행동의 결과에 있어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도덕적 추론에서도 결함을 보이며 처벌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Frick & White,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서 적대성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도덕적 판단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 도덕적 기반(개별화 및 결속)과 관계적 공격성

도덕적 기반 이론(Moral Foundations Theory)은 개인의 도덕적 가치 판단 및 의사결정에 토대가 되는 문화보편적인 도덕 기반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Haidt & Joseph, 2007). 첫째, 돌봄(Care/Harm) 기반은 행위의 도덕성 판단에 있어 약하거나 상처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동정심과 연민의 가치에 관한 것으로, 돌봄 기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 고통을 주거나 해치는 등의 잔인한 행동은 옳지 않고 비도덕적이라 평가한다. 둘째, 공정(Fairness/Reciprocity) 기반은 사람들 간의 공평성과 상호 호혜적 관계에 대한 것으로, 누군가가 차별받거나 권리를 거부당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는 토대가 된다. 셋째,

충성(Ingroup/Loyalty) 기반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협동심, 자기희생에 관한 것으로, 충성 기반을 중요시할수록 집단을 배신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비도덕적이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권위(Authority/Respect) 기반은 지배와 복종, 위계에 대한 존중에 관한 것으로, 권위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지 않거나 전통을 해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 평가하는 바탕이 된다. 다섯째, 신성(Purity/Sanctity) 기반은 순수함과 순결함에 대한 것으로, 신성 기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역겹거나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 평가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는 특정한 행동이나 상황이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반으로 작용하는데, 이 중 돌봄과 공정성은 개인의 안녕과 권리,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개별화 기반(individualizing foundations)으로 불리며, 충성과 권위, 신성은 집단의 유지를 중요시하고 이를 위한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는 결속 기반(binding foundations)으로 분류된다(Graham et al., 2009).

국내에서도 다섯 가지 도덕성 기반과 함께, 개별화 기반 및 결속 기반의 두 요인 또한 확인되어 도덕성 기반 이론의 국내 적용 가능성이 보고되었다(박진수, 이민영, 2019; 이재호, 조궁호, 2014). 그간 국내 도덕적 기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진보와 보수 등 정치 성향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거나, 간통죄 등 특정 죄명이나 사건에 관한 판단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덕적 기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류원식, 이준웅, 2017; 정은경, 손영우, 2011). 그러나 도덕적 기반이 사람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박진수 등, 2019; Jansson, & Dorrepaal, 2015), 도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격성에 도덕적 기반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찾

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도덕적 기반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약자에 대한 동정심과 개인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돌봄과 공정 등의 개별화 기반(Graham et al., 2009)을 도덕성 판단에 중요시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을 덜 보일 것이라 예측하였다. 반면,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권위에 대한 복종 및 위계를 강조하는 결속 기반(Graham et al., 2009)을 중요시할수록, 상대에 화가 났을 때 배제나 평판 훼손 등으로 해를 입히려는 관계적 공격성을 더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더불어,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자신과 타인의 분리가 어렵고 타인과의 융합이 높으며 상대를 지배하려 하는 등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보인 결과를 바탕으로(Skowro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서 도덕적 기반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타인에게 적대성을 보이며(한동현 등, 2013), 적대성은 집단 내에서의 비동조성 및 소외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Lynam et al., 2011). 이러한 결과는 먼저 자기분화와 적대성 사이 부적 상관성이 나타날 가능성과 함께, 적대성이 높을수록 행위의 도덕성 판단에 있어 타인의 고통이나 아픔, 권리 거부나 차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집단의 결속이나 협동, 집단에 대한 개인의 의무 역시 중요시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개별화 기반과 관련해서는 적대성이 높으면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약자에 대한 연민을 갖지 않으므로(남정훈 등, 2025), 타인을 해치는 잔인한 행동을 비도덕적이라 평가하는 돌봄 기반을 중요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대성이 높으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Pardini et al., 2003), 누군가의 권리가 부정당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는 긍정 기반을 중요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결속 기반과 관련해서는 우선 적대성이 높을수록 친화력이 낮고 집단에서 비협조적인 특성을 보이므로(남창형 등, 2024),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협동심을 강조하는 충성 기반을 중요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적대성이 높을수록 권력이나 지배에 순응하지 않고 반사회성이 높으므로(Lynam et al., 2011), 권위에 대한 존중과 전통을 강조하는 권위 기반을 중요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적대성이 높을수록 정서적 반응성이 낮고 무심한 특성을 보이므로(Loney et al., 2006), 역겹거나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비도덕적이라 평가하는 신성 기반을 중요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서 적대성과 도덕적 기반(개별화 기반 및 결속 기반)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적대성이 낮고, 적대성이 낮을수록 개별화 기반이 높으며, 개별화 기반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적대성이 낮고, 적대성이 낮을수록 결속 기반이 높으며, 결속 기반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요약컨대,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분화와 적대성, 도덕적 기반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서 적대성의 매

개효과가 유의한가? 셋째,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서 도덕적 기반의 매개효과가 유의한가? 넷째,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서 적대성과 도덕적 기반의 연속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한가?

## 방 법

### 연구대상

자기분화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대성과 도덕적 기반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20-50대 성인 총 320명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였다. 자료는 연령대(20, 30, 40, 50대 각각 80명) 및 성별(남녀 각각 160명)에 따라 고르게 수집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39.54이고, 표준편차는 10.84이다. G\*Power 프로그램(Faul et al., 2007)으로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간효과 크기를 기준( $f^2 = .15$ )으로 Power( $1 - \beta$ )가 .95보다 크므로 적절한 표본 크기가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자기분화

자기분화는 Bowen(1978)의 자기분화 이론을 바탕으로 정혜정 등(2007)이 개발한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Korean Self-Differentiation Inventor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다섯 가지 하위 요인의 38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요인인 정서적 반응은 '사람들은 내가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말한다'와 같은 9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고, 두 번째

제 요인인 자기입장은 '누군가가 압력을 가해도 내 감정과 신념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등의 8개 문항, 세 번째 타인과의 융합은 '내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등 7개 문항으로 측정한다. 네 번째 요인인 정서적 단절은 '나는 자라면서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꼈다' 등의 5개 문항, 다섯 번째 요인인 정서적 융합은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다' 등 9개 문항을 통해 측정한다(정혜정 등, 2007). 이때 연구 참여자 가운데 미혼일 경우를 고려하여, 일부 문항에서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문항은 '상대' 혹은 '누군가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예: '배우자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내 속마음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한다'를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내 속마음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한다'로 수정). 각 문항에 대해 0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6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하위 요인들 가운데 자기입장을 제외하고 4개의 요인은 역코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혜정 등(2007)이 보고한 자기분화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다.

### 적대성

적대성은 정신병질의 자기보고식 측정을 위해 Lynam 등(2013)이 개발한 EPA-SF(Elemental Psychopathy Assessment-Short Form)의 4개 하위 요인 중 하나인 적대성(antagonism)에 해당하는 1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4개 문항씩 총 4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내 문제가 아니다'와 같은 냉담성,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신경쓴다' 등 냉정함, '나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믿지 않는다' 등의 불신,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등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는 자기중심성이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하위 요인들 가운데 냉정함에 해당하는 4개 문항과 함께 다른 일부 문항들을 역코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적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Sellbom(2021)이 보고한 적대성의 내적 신뢰도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79이다.

### 도덕적 기반

도덕적 기반은 Graham 등(2011)이 개발한 도덕성 기반 설문지(MFQ: Moral Foundations Questionnaire)의 한국어 번역판(Kim et al., 2012)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30개 문항으로, 다섯 개의 도덕 기반에 대해 15개의 도덕성 관련 문항과 15개의 도덕성 판단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돌봄 기반은 '어떤 사람이 약하거나 다치기 쉬운 사람을 돌보는지'(도덕성 관련) 및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동정심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도덕성 판단) 등 6개 문항을 통해 측정한다. 둘째, 공정은 '어떤 사람이 불공정하게 행동하는지'(관련) 및 '정부가 법을 제정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법을 만드는 것이다'(판단)와 같은 6개 문항을 통해 측정한다. 셋째, 충성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속한 집단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는지'(관련) 및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집단의 팀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팀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판단) 등의 6개 문항을 통해 측정한다. 넷째, 권위는 '어떤 사람이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보이는지'(관련) 및 '권위에 대한 존

중은 모든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다(판단) 등 6개 문항을 통해 측정한다. 다섯째, 신성은 '어떤 사람이 순결함과 품위의 기준을 위반하는지'(관련) 및 '순결(또는 동정)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덕목이다(판단)와 같은 6개 문항을 통해 측정한다. 도덕성 관련 15개 문항은 각각 0점(전혀 관련 없다)부터 5점(전적으로 관련 있다)까지 6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도덕성 판단 15개 문항은 0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6점 척도로 각각 측정하였다. Graham 등(2011)이 보고한 내적 신뢰도는 각각 .69(돌봄), .65(공정), .71(충성), .74(권위), .84(신성)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각각 .69(돌봄), .66(공정), .58(충성), .56(권위), .55(신성)이다. 이 가운데 돌봄과 공정은 개별화 기반으로, 충성과 권위, 신성은 결속 기반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박진수 등(2019)이 보고한 내적 신뢰도는 각각 .75(개별화 기반), .76(결속 기반)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1(개별화 기반), .82(결속 기반)이다.

### 관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데 많이 활용되는 Morales와 Crick(1998)의 자기보고식 공격성 및 행동 질문지(SRASBM: Self-Report of Aggression and Social Behavior Measure)를 국내에서 김현아 등(2016)이 번역한 자기보고식 공격성 척도 중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에는 총 11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친구 때문에 화가 났을 때, 나는 친구의 연인에게 추파를 던진 적이 있다'를 제외하고 총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누군가에게 무언가 원

하는 것이 있을 때 나는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냉정하거나 무관심하게 행동한다', '내가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거나 누군가를 질투할 때,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나 나쁜 정보를 퍼뜨려서 그 사람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려고 한 적이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까지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Preston 등(2018)이 보고한 내적 신뢰도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92이다.

### 분석 절차

SPSS 25.0 및 PROCESS macro 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Hayes, 2022). 가장 먼저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자기분화와 적대성, 도덕적 기반(개별화 기반, 결속 기반)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 이후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서 적대성과 도덕적 기반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우선 자기분화와 적대성, 도덕적 기반, 관계적 공격성 등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표 1 참조).

우선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적대성이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변인	자기 분화	적대성	돌봄	공정	충성	권위	신성	개별화 기반	결속 기반	관계적 공격성
자기분화	1									
적대성	-.213***	1								
돌봄	-.148**	-.254***	1							
공정	-.106	-.207***	.689***	1						
충성	-.177**	-.155**	.518***	.462***	1					
권위	-.174**	-.136*	.491***	.432***	.707***	1				
신성	-.160**	-.150**	.502***	.385***	.610***	.685***	1			
개별화 기반	-.139*	-.252***	.924***	.913***	.534***	.503***	.485***	1		
결속 기반	-.193***	-.167**	.571***	.482***	.871***	.901***	.874***	.575***	1	
관계적 공격성	-.403***	.373***	-.108	-.046	.137*	.159**	.145**	-.085	.166**	1
M	97.93	43.88	20.02	19.74	16.83	16.91	16.79	39.76	50.53	24.49
SD	23.52	7.32	4.40	4.12	3.92	3.92	4.23	7.84	10.64	10.94

\*  $p < .05$ , \*\*  $p < .01$ , \*\*\*  $p < .001$

유의하게 낮았고, 돌봄과 충성, 권위, 신성 기반을 중요시하지 않았으며, 관계적 공격성 또한 낮게 나타났다. 도덕적 기반을 개별화 기반 및 결속 기반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도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개별화 기반 및 결속 기반을 모두 중요시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적대성이 높을수록 5개의 도덕적 기반을 모두 중요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도덕적 기반을 개별화 및 결속 기반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적대성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돌봄과 공정, 개별화 기반은 관계적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충성, 권위, 신성 기반 및 결속 기반을 중요시할수록 높은 관계적 공격성을 보였다.

#### 다중회귀분석 결과

이번에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자기분화와 적대성, 도덕적 기반(개별화 기반, 결속 기반)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표 2 참조).

그 결과, 관계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모델의 설명력은 29%로 유의하였다( $R^2 = .302$ ,  $adjR^2 = .293$ ,  $F = 34.100$ ,  $p < .001$ ). 이때 Durbin-Watson 통계량은 1.755로 2에 매우 근접하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분산 팽창 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 미만으로 모두 확인되어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자기분

표 2.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	표준화	$t$	$p$	공선성 통계량	
		계수 $B(SE)$	계수 $\beta$			공차	VIF
관계적 공격성	(상수)	16.706(6.229)		2.682	.008		.008
	자기분화	-.147(.023)	-.315	-6.331	< .001	.894	1.119
	적대성	.445(.075)	.298	5.009	< .001	.870	1.149
	개별화 기반	-.298(.082)	-.213	-3.623	< .001	.640	1.563
	결속 기반	.286(.060)	.278	4.769	< .001	.654	1.529

$R^2 = .302$ ,  $adjR^2 = .293$ ,  $F = 34.100(p < .001)$ , Durbin-Watson = 1.755

화와 적대성, 개별화 기반과 결속 기반이 관계적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beta = -.315$ ,  $p < .001$ ), 개별화 기반을 중요시할수록( $\beta = -.213$ ,  $p < .001$ ) 관계적 공격성이 더 낮았다. 반면, 적대성이 높을수록( $\beta = .298$ ,  $p < .001$ ), 결속 기반을 중요시할수록( $\beta = .278$ ,  $p < .001$ )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았다.

####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서 적대성과 도덕적 기반의 연속다중매개효과

이번에는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서 적대성과 도덕적 기반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6로 분석하였다(Hayes, 2022). 이때, 도덕적 기반 중 돌봄과 공정 등의 개별화 기반은 관계적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매개분석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고, 결속 기반에 대해서만 연속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3, 그림 1 참조), 자기분화가 적대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B = -.066$ ,  $p$

< .001)을 미쳤고, 자기분화가 결속 기반에 미치는 영향( $B = -.108$ ,  $p < .001$ ) 또한 유의하였다. 더불어, 적대성이 결속 기반에 미치는 영향( $B = -.316$ ,  $p < .001$ ) 또한 유의하였다. 또한, 적대성이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 $B = .503$ ,  $p < .001$ )을 미쳤고, 결속 기반 역시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 $B = .169$ ,  $p < .01$ )을 미쳤다. 한편, 자기분화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 또한 유의하였다( $B = -.139$ ,  $p < .001$ ).

단순매개효과 분석 결과,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 적대성을 투입한 단순매개효과(M1)는 95% 신뢰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서 적대성의 매개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적대성이 낮고, 적대성이 낮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낮다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 결속 기반을 투입한 단순매개효과(M2) 역시 95% 신뢰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서 결속 기반의 매개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분화

표 3. 자기분화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대성과 결속 기반의 연속다중매개효과

매개경로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b>총효과</b>				
자기분화 → 관계적 공격성	-.1872	.0239	-.2342	-.1403
<b>직접효과</b>				
자기분화 → 관계적 공격성	-.1392	.0235	-.1854	-.0929
<b>총 간접효과</b>				
자기분화 → 적대성 → 관계적 공격성(M1)	-.0333	.0110	-.0562	-.0134
자기분화 → 결속 기반 → 관계적 공격성(M2)	-.0183	.0085	-.0377	-.0047
자기분화 → 적대성 → 결속 기반 → 관계적 공격성(M3)	.0035	.0019	.0007	.0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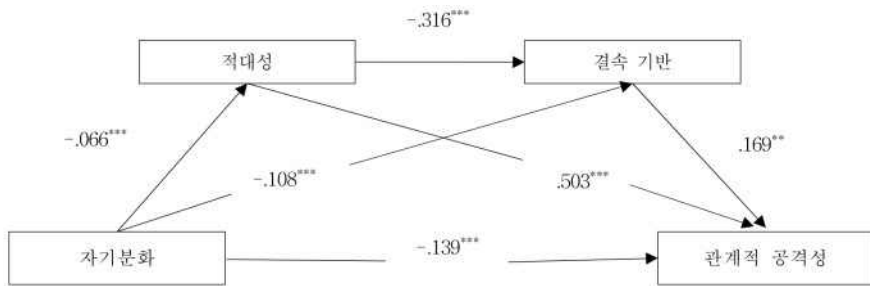


그림 1.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서 적대성과 결속 기반의 연속다중매개효과

수준이 높을수록 결속 기반을 중요시하지 않고, 결속 기반을 중요시하지 않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낮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번에는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 적대성과 결속 기반을 연속 투입해 간접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95% 신뢰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아 연속다중매개효과(M3)가 유의하였다. 이는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적대성이 낮고, 적대성이 낮을수록 결속 기반을 중요시하며, 결속 기반을 중요시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낮다는 것을 가리킨다.

##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비대면 접촉 및 온라인 상호작용의 증가로 더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심리사회적, 문화적, 성격적 접근 등 다차원적인 경로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특히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가 유아나 학생 등에 집중되어 온 바(최지영 등, 2014),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묘하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관계적 공격성의 특성상 개입이 늦어지기 쉬워 그 피해가 더욱 장기적이고 심각할 수 있으므로(설명희 등, 2023), 관

계적 공격성의 개선 및 예방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은 그만큼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자기분화와 적대성, 도덕적 기반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개별화 기반을 중요시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낮았다. 반면, 적대성이 높을수록, 결속 기반을 중요시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았다.

우선 그간 신체적 공격성과 자기분화의 관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구되었으나(이명신 등, 2013). 본 연구는 자기분화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 자기분화는 다중회귀 분석에서 다른 변인에 비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자기분화:  $\beta = -.315$ , 적대성:  $\beta = .298$ , 개별화 기반:  $\beta = -.213$ , 결속 기반:  $\beta = .278$ ). 자기분화 수준이 높으면 사람들 간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타인과의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의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최연화, 2012). 그러나, 자기분화 수준이 낮으면 타인과의 융합이 높아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 차이에 대해 불편해하고, 갈등 상황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인다(Skowron & Schmitt, 2003). 따라서, 앞으로도 자기분화가 관계적, 언어적 공격성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요한다.

또한, 그간 정신병질, 즉 사이코패시에 관해서는 주로 살인이나 성폭력과 같은 강력범죄와의 연관성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적대성과 관계적 공격성과의 연관성을 보인 본 결과는 냉담함과 낮은 공감 능력, 높은 자기

중심성으로 관계에서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관계적 공격성에 더욱 주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질의 핵심 요인으로 불리는 적대성만을 측정하였으나, 향후에는 정신병질의 다른 하위 요인인 정서적 안정성, 탈억제, 나르시시즘(Lee & Sellbom, 2021)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그간 도덕적 기반과 관련해서는 주로 정치 성향과의 관련성이 연구되었으나(박진수 등, 2019; 이재호 등, 2014), 본 연구는 도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격성, 그중에서도 특히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도덕적 기반의 영향에 대해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돌봄과 공정 등 개별화 기반은 관계적 공격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충성 및 권위, 신성 등 결속 기반은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한편,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개별화 기반과 결속 기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행위의 도덕성 판단에 있어 개인의 안녕과 권리,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별화 기반을 중요시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낮았던 반면, 집단의 유지를 위한 개인의 의무와 희생을 강조하는 결속 기반을 중시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기반의 유형에 따라 서로 반대 방향의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누군가에 고통을 주는 행동은 비도덕적이라 평가하는 돌봄 기반과 함께, 상호 호혜적 관계를 중요시하며 차별에 반대하는 공정 기반을 포함하는 개별화 기반(Graham et al., 2009)을 강조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낮았다. 반면, 집단에 대한 협

조와 희생을 강조하는 충성 기반, 집단의 위계와 복종, 의무를 중요시하는 권위 기반, 순수함을 강조하고 혐오스러운 것을 비도덕적이라 평가하는 신성 기반 등 결속 기반(Graham et al., 2009)을 도덕성 판단에 있어 중요시할수록 높은 관계적 공격성을 보였다. 이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강조하는 결속 기반을 도덕성 판단에 중요시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에게 화가 났을 때 집단 내에서 상대를 배제하거나 평판을 훼손하는 등 사회적 관계의 손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도덕적 기반과 다른 형태의 공격성과의 연관성을 탐구하고, 특히 개별화 기반과 결속 기반으로 나누어 공격성과의 관계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서 적대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독립성과 타인과의 연합이 조화를 이루어 공존하는 자기분화는 과거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 요인 중에서도 '착취/자기중심성'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바 있다(김중운 등, 2017). 본 연구 결과는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의 결여와 자기중심성, 낮은 친화력 등을 보이는 적대성이 높고, 적대성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은밀하고 교묘한 조종 등을 포함하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서 도덕적 기반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본 결과, 결속 기반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자기분화 수준이 낮으면 자신과 타인의 분리가 어려워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지나친 영향을 받고 자신의 독립성과 정체성

을 지켜나가기 어렵다(김남희 등, 2020; 정혜정 등, 2007). 본 연구 결과는 이처럼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행위의 도덕성 판단에 있어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집단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융합을 중요시하는 결속 기반을 강조하며, 결속 기반을 중요시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개별화 기반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매개분석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개별화 기반의 영향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로 그 관계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네 번째 연구문제인 자기분화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서 적대성과 도덕적 기반의 연속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적대성이 낮고, 적대성이 낮을수록 결속 기반을 중요시하며, 결속 기반을 중요시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다. 앞서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적대성은 자기분화와 부적 상관이 있었고, 모든 도덕적 기반, 즉 다섯 가지 도덕 기반 모두와 개별화 기반 및 결속 기반과도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간 적대성이 높은 사람은 공감 능력 및 죄책감의 결여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개의치 않고(Pardini et al., 2003), 처벌에 대한 낮은 반응성과 도덕적 추론에서의 결함이 지적된 바 있다(Frick & White, 2008).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적대성 혹은 정신병질과 도덕적 기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고, 따라서 본 결과는 행위의 도덕성 판단에 있어 적대성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자기분화가 적대성과 도덕적 기반을 거쳐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살펴본 본 연구는,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성격적, 도덕적, 문화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려는 시도로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여러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선 도덕적 기반의 하위 유형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다른 유형의 공격성을 살펴볼 때도 도덕적 기반의 하위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언어폭력이나 교제 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있어 개별화 기반 및 결속 기반 등 도덕적 기반이 각각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 볼 수 있다(박지선, 2025). 또한, 공격성에 미치는 도덕적 기반의 영향뿐만 아니라 범죄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에 미치는 도덕적 기반의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임하연, 박지선, 2023).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그 결과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진행되어 특히 도덕적 판단이나 공격성 등에 관한 응답에 있어 사회적 바람직성의 편향이 반영되었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 및 일반화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분화가 적대성과 도덕적 기반을 거쳐 관계적 공격성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연속다중매개분석을 통하여 탐색한 것으로,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하였으므로 변인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으로 변인 사이에서 선후관계의 경로를 비교하는 등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한

재검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관계적 공격성의 개선을 위한 치료적 함의를 가진다. 우선, 타인과의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등 자기분화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적 공격성을 개선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이정훈 등, 2013). 즉, 스트레스나 외부 압력 아래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고할 수 있으며, 타인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자율성을 유지하고, 관계에서 오는 불안을 줄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감정적 반응성을 줄이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등 자기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관계적 공격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이명신 등, 2013; Skowron & Platt, 2005). 특히 국내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이 주로 외현적인 공격성에 집중하고 있어 관계적 공격성 개선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고, 더 나아가 학교폭력 및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도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전문적 개입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최지영 등, 2014). 또한 정신병질 특질 중에서도 적대성을 낮추고 의사소통 방식 및 공감 능력, 정서조절 능력을 함양하는 심리치료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의 감소에 일조할 수 있다(박동주 등, 2023; Czar et al., 2011). 특히 정신병질이 높으면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등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처벌보다는 보상 위주로 친사회적 행동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의 개입을 통해 관계적 공격성의 감소에 일조할 수 있다(Frick & White, 2008).

### 참고문헌

- 김남희, 김해란 (2020). 대학생의 자기분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8(4), 15-26.
- 김중운, 정주희 (2017).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이차적 분노사고의 관계에서 용서인념과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5(2), 273-297.
- 김현승, 박지선 (2023). 사이버 스토킹 사건 판단에 피해자와의 관계와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8(2), 255-275.
- 김현아, 장혜인 (2016).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및 애착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녀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3), 253-275.
- 남정훈, 남창형, 서종한 (2025). 남성의 사이코패시 성향과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 성역할 고정관념과 폭력 허용도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법*, 16(3), 187-218.
- 남창형, 서종한 (2024). EPA-SF (Elemental Psychopathy Assessment-Short Form) 국내 타당화 연구. *한국범죄학*, 18(3), 163-201.
- 류원식, 이준웅 (2017). 도덕기반이 정치이념, 정치적 의견표명, 관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61(5), 491-525.
- 박동주, 유미진 (2023). 국내외 관계적 공격성 관련 변인 메타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 285-302.
- 박지선 (2025). 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1(4), 751-768.
- 박진수, 이민영 (2019). 대학생들의 SNS 정치참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구: 도덕기반 신념의 조절적 역할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6(2), 5-41.
- 서미정 (2011). 아동과 청소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 차이 및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학회지*, 32(3), 143-162.
- 설명희, 김정민, 조한솔 (2023).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도덕적 이탈의 이중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41(3), 1-15.
- 오승은, 이승연 (2011). 남녀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절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2(3), 147-169.
- 윤성민 (2017). 자아분화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가족갈등대처행동,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4), 1115-1141.
- 윤혜성, 박지선 (2024). 정서표현 양가성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9(2), 131-146.
- 이명신, 이계민 (2013).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아분화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2(2), 225-271.
- 이재호, 조궁호 (2014). 정치성향에 따른 도덕 판단기준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1), 1-26.
- 이정훈, 양난미, 이명신 (2013). 대학생의 자기분화와 데이트 언어폭력의 관계: 문제음주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6), 3653-3672.

- 임하연, 박지선 (2023). 테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서 '피해자다움'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9(3), 305-320.
- 정은경, 손영우 (2011).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간통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27-741.
- 정혜정, 조은경 (2007). 한국형 자아분화 척도 개발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15(1), 19-46.
- 제석봉 (2002). 자아분화와 부부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3(1), 171-183.
- 최연화 (2012). 대학생의 자아분화, 성인애착, 관계중독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3(2), 689-704.
- 최지영, 배라영 (2014).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13년. *인간발달연구*, 21(1), 181-200.
- 한동현, 김완일 (2013).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1), 247-263.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Czar, K. A., Dahlen, E. R., Bullock, E. E., & Nicholson, B. C. (2011). Psychopathic personality traits in relational aggression among young adults. *Aggressive Behavior*, 37(2), 207-214.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Frick, P. J., & White, S. F. (2008). Research review: The importance of callous unemotional traits for developmental models of aggressive and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4), 359-375.
- Graham, J., Haidt, J., & Nosek, B. A. (2009). Liberals and conservatives rely on different sets of moral found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5), 1029.
- Graham, J., Nosek, B. A., Haidt, J., Iyer, R., Koleva, S., & Ditto, P. H. (2011). Mapping the moral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2), 366.
- Haidt, J., & Joseph, C. (2007). The moral mind: How five sets of innate intuitions guide the development of many culture-specific virtues, and perhaps even modules. *The Innate Mind*, 3(3), 367-391.
- Harani, I., & Ben-Porat, A. (2026). Intimate Partner Violence: A Dyadic Examination of Self Differentiation and Responsive Caregiv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8(1), 36-49.
- Hare, R. D. (2006). Psychopathy: A clinical and forensic overview. *Psychiatric Clinics*, 29(3), 709-724.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The Guilford Press.
- Jansson, J., & Dorrepaal, E. (2015). Personal norms for dealing with climate change: results from a survey using moral foundations theory. *Sustainable Development*, 23(6), 381-395.
- Kim, K. R., Kang, J. S., & Yun, S. (2012). Moral intuitions and political orientati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sychological Reports*, 111(1),

- 173-185.
- Lee, K. Y., & Sellbom, M. (2021). Further validation of the Elemental Psychopathy Assessment-Short Form (EPA-SF) in a large university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03*(3), 289-299.
- Loney, B. R., Butler, M. A., Lima, E. N., Counts, C. A., & Eckel, L. A. (2006). The relation between salivary cortisol, callous unemotional traits, and conduct problems in an adolescent non-referred sampl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1), 30-36.
- Lynam, D. R., Gaughan, E. T., Miller, J. D., Miller, D. J., Mullins-Sweatt, S., & Widiger, T. A. (2011). Assessing the basic traits associated with psychopath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lemental Psychopathy Assess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23*(1), 108.
- Lynam, D. R., Sherman, E. D., Samuel, D., Miller, J. D., Few, L. R., & Widiger, T. A. (2013). Development of a short form of the elemental psychopathy assessment. *Assessment, 20*(6), 659-669.
- Miller, J. D., Hyatt, C. S., Rausher, S., Maples, J. L., & Zeichner, A. (2014). A test of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Elemental Psychopathy Assessment scores in a community sample of adults. *Psychological Assessment, 26*(2), 555.
- Morales, J. R., & Crick, N. R. (1998). *Self-Report of Aggression and Social Behavior Measure* (Unpublished measure).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Campus, Minneapolis, MN.
- Murray-Close, D., Ostrov, J. M., Nelson, D. A., Crick, N. R., & Coccaro, E. F. (2010). Proactive, reactive, and romantic relational aggression in adulthood: Measurement, predictive validity, gender differences, and association with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4*(6), 393-404.
- Pardini, D. A., Lochman, J. E., & Frick, P. J. (2003).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social-cognitive processes in adjudicated youth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2*(3), 364-371.
- Patafio, B., Skvarc, D., Mayshak, R., Harries, T., Curtis, A., Benstead, M., Hayley, A., McNeil, D. G., Bereznicki, H., & Hyder, S. (2025). Dark and light personalities: A utilitarian perspective on their impact on relational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2*, 113209.
- Preston, O. C., Watts, A. L., Anestis, J. C., & Lilienfeld, S. O. (2018). Psychopathic traits' differential relations with aggression forms: Considering the roles of gender and gender role adherenc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7*(8), 628-658.
- Schmeelk, K. M., Sylvers, P., & Lilienfeld, S. O. (2008). Trait correlates of relational aggression in a nonclinical sample: DSM-IV personality disorders and psychopath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2*(3), 269-283.
- Skowron, E. A., & Platt, L. F. (2005). Differentiation of self and child abuse potential in young adulthood. *The Family Journal, 13*(3), 281-290.
- Skowron, E. A., & Schmitt, T. A. (2003). Assessing interpersonal fusion: Reliability and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alidity of a new DSI fusion with others sub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2), 209-222.

Skowron, E. A., Stanley, K. L., & Shapiro, M. D. (2009).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differentiation of self, interperson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young adulthood.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1(1), 3-18.

논문 투고일 : 2026. 02. 15

1 차 심사일 : 2026. 03. 30

게재 확정일 : 2026. 04. 14

##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s of Antagonism and Moral Foundations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on relational aggression, and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s of antagonism and moral foundations between them. Based on the data obtained from 320 people in their 20s to 50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antagonism, and moral foundations had all significant effects on relational aggression. The mediation effect of antagonism was significant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which means that the lower the self-differentiation, the higher the antagonism, and the higher the relational aggression. In addition, the mediation effect of binding foundations was significant, such that the lower the self-differentiation, the stronger the binding foundations, and the higher the relational aggression.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s of antagonism and binding foundations were significant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The higher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the lower the level of antagonism, the stronger the level of binding foundations, and the higher the level of relational aggression.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on preventing relational aggress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self-differentiation, relational aggression, antagonism, moral foundations, binding foundations